

2024학년도 중등 교육 임용시험 대비

합격을 위한 월비스임용  
**GUIDE BOOK**

**김종권 전공역사**



**월비스 임용고시학원**



# 목 차

01. 중등교사 임용시험

02. 2014년 이후 기출 문제 주제별 분포 및 경쟁률

03. 2023년 교원임용시험,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04. '월비스 전공역사 김종권' 1년 커리큘럼

05. 모의고사 적중 사례



## 01. 중등교사 임용시험

### ▶ 출제방향

-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문항을 출제
-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중등교사 임용 전형자료를 제공

### ▶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항 유형

- 1차 시험

현행 (2018년 말 시행 예정인 2019학년도 임용시험까지 적용)						변경 (2019년 말 시행 예정인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전공	전공 A	2교시 (90분)	기입형	8문항	16점	40점	전공 A	2교시 (90분)	기입형	4문항	8점	40점
			서술형	6문항	24점				서술형	8문항	32점	
	전공 B	3교시 (90분)	서술형	5문항	20점	40점	전공 B	3교시 (90분)	기입형	2문항	4점	40점
				2문항	10점				서술형	9문항	36점	
			논술형	1문항	10점							
	소계		22문항	80점			소계			23문항	80점	
합계			23문항	100점		합계				24문항	100점	

※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 기본원칙 :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12.1)까지

○ 교과: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까지

• 2차 시험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비 고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 평가(수업실연, 실기·실험)	시·도교육청 결정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문항수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문항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문항
수업실연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문항

▶ 출제 원칙

- 중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문제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한다.
-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 ‘중등교사 신규임용 시도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

## 02. 2014년 이후 기출 문제 주제별 분포

### ▶ 2014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문항		영역	내용
A 형	2 점	기1	역교론 2009 교육개정과정
		기2	역교론 세계사 내용조직(문화권적 방법)
		기3	한국사 백제 : 개로왕의 복위국서 -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
		기4	한국사 신라 : 장보고, 청해진
		기5	한국사 조선 : 향약(수령 향약과 사족 향약)
		기6	한국사 조선 : 중화사상탈피
		기7	한국사 대한제국 : 영학당
		기8	동양사 인도 : 아소카왕 다르마
		기9	동양사 중국 : 왕망정권 - 왕전제, 노비매매 금지
		기10	동양사 중국 : 과거제도 - 전시
		기11	동양사 일본 : 동방회의
		기12	서양사 로마 : 로마 통치 구조
		기13	서양사 독일 : 독일농민전쟁 당시 이념
		기14	서양사 프랑스 : 2월혁명
		기15	서양사 2차세계대전 독일의 정책
B형	3 점	서1	역교론 연표제작, 평가
		서2	역교론 역사 사고 과정
		서3	한국사 고려 : 지눌의 활동 - 수선사 결사, 선교사상일치
		서4	한국사 독립운동 : 조선학운동
	4 점	서5	동양사 중국 : 양무운동 - 주체 세력의 한계
		서6	서양사 서양 : 영국과 프랑스의 통상 정책 비교
	5 점	서1	동양사 중국 : (명)정난의 변
	10 점	서2	서양사 서양 : 클뤼니 수도원
		논1	역교론 역사지식, 학습자관, 현장학습(박물관)
		논2	한국사 삼국시대와 조선전기 경제정책, 실학자의 토지개혁론

▶ 2015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문항			영역	내용
A 형	2 점	기1	한국사	고려도경
		기2	한국사	미천왕의 낙랑군 공격의 역사적 의의
		기3	동양사	한 무제 업적 - 추은령, 좌관율, 부익률, 아당률 등
		기4	일본사	일본, 헤이안시대 문화 대외적 배경
		기5	동양사	원대 통치 체제의 특징(양세법)
		기6	동양사	옹정제 - 황태자밀건법
		기7	서양사	샤를마뉴 이슬람 원정, 롤랑의 노래
		기8	서양사	알비즈와파(알비파, 알비즈파) 특징
		기9	기타사	아이티혁명
		기10	서양사	1849년 독일 헌법(프랑크푸르트 헌법) - 대독일주의
	5 점	서1	역교론	2007개정 동아시아 교육과정, 수업 목표, 극화학습 특성
		서1	한국사	조선후기 노비종모법, 잡색군과 속오군
		서3	역교론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
		서4	한국사	을미개혁, 을미의병
B 형	5 점	서1	동양사	북위 6진의 반란, 관룡집단
		서2	서양사	헤로도토스 <역사>, 투키디데스 <역사>, 페르시아전쟁 배경
		서3	동양사	손요폐선언, 1차국공합작, 신삼민주의
		서4	서양사	소련 1955-60년대 개혁 정책, 70년대 서독의 대외 정책(동방정책)
	10 점	논1	역교론	성향적 설명, 주제학습
		논2	한국사	김사미·효심의 난, 임술봉기, 산미증식계획, 농지개혁 전후 자작농 증가



▶ 2016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문항	점수	번호	영역	비고
A형	2점	1	역교론 - 2009 개정교육과정[고시 제2012-14호]	
		2	역교론 - 총괄적 설명	
		3	한국사 - 의상	
		4	한국사 - 지계사업	
		5	중국사 - 원대 역참, 시박사	
		6	기타사 - 인도, 악바르	
		7	서양사 - 절대왕정	
		8	서양사 - 2차세계대전, 이탈리아	
	4점	9	역교론 - 비교학습	
		10	한국사 - 무신정권, 정방	
		11	한국사 - 공법	
		12	한국사 - 노론(서인), 송시열	
		13	중국사 - 유학(훈고학), 금문경 고문경 논쟁	
		14	서양사 - 고대 그리스(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등)	
B형	4점	1	역교론 - 문학작품 활용 수업	
		2	한국사 - 한국독립당, 조선의용대	
		3	한국사 - 미소공위, 좌우합작운동	
		4	기타사 - 사산조 페르시아, 비잔티움 군관구제	
		5	중국사 - 신축조약, 광서신정	
	5점	6	중국사 - 당, 안사의 난, 번진(절도사)	
		7	서양사 - 먼로선언, 미국의 문호개방정책	
	10점	8	역교론 - 합리적 설명	

▶ 2017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문항	점수	번호	영역	비고
A형	2점	1	역교론 - 3차교육과정(국사과 독립)	박정희
		2	한국사 - 고구려 왕위 계승, 수도	
		3	한국사 - 고려 성종, 건원중보	
		4	한국사 - 독립협회(관민공동회, 중추원)	
		5	중국사 - 중국 당 군사제도(부병제, 모병제)	
		6	일본사 - 미일수호통상조약, 불평등 내용	
		7	서양사 - 7년전쟁	
		8	기타사 - 아프리카 민족운동(콩고, 보어전쟁)	
	4점	9	역교론 - 수업(토의식 수업, 사료 학습)	현 교육정책 관련
		10	역교론 - 역사 성격(과학, 문학)	
		11	중국사 - 격의불교, 구검지, 복위 태무제	
		12	한국사 - 귀속재산, 부정축재처리법, 원조 경제	박정희 정부
		13	중국사 - 명 태조(홍무제) 정책	
		14	서양사 - 로마, 피보호자, 평민회, 마리우스 개혁	
B형	4점	1	역교론 - 수행평가의 이유(목적), 채점 기준	
		2	한국사 - 역사서(동국통감, 동사강목)	
		3	중국사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최고 난이도
		4	서양사 - 4차 십자군, 라테란 공의회	
		5	서양사 - 유럽 통합 과정	
	5점	6	한국사 - 조선, 유향소, 경재소	
		7	한국사 - 임시정부, 3부통합, 신간회	
	10점	8	역교론 - 내용조직, 유추, 수업유형, 역사적 사고력	비교적 평이

▶ 2018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문항	점수	번호	영역
A형	2점	1	역교론 -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
		2	한국사 - 고구려 주몽 업적, 동부여 복속, 독자적 천하관
		3	역교론 - 인과적 설명, 비교적 설명
		4	중국사 - 통지, 서술체계
		5	한국사 - 한일협정, 한국군의 현대화
		6	오스만 - 탄지마트(은해개혁), 예니체리
		7	서양사 - 헤일로타이, 메세니아의 헤일로타이 해방
		8	서양사 - 플랑드르, 모직물
	4점	9	역교론 - 추체험, 감정이입, 콜링우드 재사고, 극화수업
		10	한국사 - 균여, 의천
		11	한국사 - 지방금융조합, 화폐정리사업, 면방직업 원료 획득
		12	한국사 - 농서집요, 농사직설, 이양법 장단점
		13	중국사 - 문화대혁명, 팡덕회, 인민공사, 문화혁명 4인방
		14	서양사 - 엔코미엔다, 가격혁명, 상업혁명
B형	4점	1	한국사 - 찬양회, 근우회, 협동전선
		2	역교론 - 역사를 안다, 탐구수업
		3	중국사 - 오초칠국의 난, 한무제 정책,
		4	한국사 - 임진왜란 명의 지원, 광해군 명 지원, 친명배금
		5	서양사 - 옥타비아누스, 프린카피투스 특징, 악티움해전, 재정 장악
	5점	6	서양사 - 러시아 농노해방령, 브나로드운동·사회혁명당 공통사상, 스톨린핀 개혁
		7	동양사 - 양무운동, 메이지유신, 해국도지, 유흥기
	10점	8	역교론 - 술만 교수내용지식, 리와 화이트 논쟁, 비판적 읽기와 쓰기, 묘청의 서경천도

▶ 2019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문항	점수	번호	영역
A형	2점	1	역교론 - 내용조직(역연대기, 주제중심)
		2	한국사 - 발해와 신라 쟁장사건, 빈공과
		3	중국사 - 서위, 동위, 하음의 변
		4	이집트 - 아멘호텝, 종교개혁(일신교), 아마르나
		5	한국사 - 아방강역고, 초계문신제
		6	중국사 - 송, 참파벌, 왕안석 신법(농전수리법)
		7	서양사 - 케로네아전투, 코린트(헤레네스) 동맹
		8	한국사 - 대한철도회사, 한일의정서
	4점	9	역교론 - 내러티브의 장점과 단점
		10	중국사 - 신청년 : 사이언스(과학), 문제와 주의 논쟁, 이대조
		11	서양사 - 에스파냐왕위계승전쟁, 위트레흐트조약 등
		12	한국사 - 강조의 정변, 귀주대첩, 거란 침입 배경, 경기 설치
		13	중국사 - 시모노세키조약, 대만 점령, 강유위 변법운동(교육제도 개혁)
		14	역교론 - 상호관련성의 원리(상호의존성의 원리), 세계 역사의 이해
B형	4점	1	한국사 - 남북협상, 4·19 이후 혁신세력과 학생의 통일운동
		2	중국사 - 한무제, 대사농, 장건 서역 파견 계기, 하서사군의 돈황
		3	서양사 - 클로비스, 서고트, 테오도릭
		4	역교론 - 2015교육과정(정체성과 상호존중), 향토사 장점과 단점
		5	서양사 - 뉘른베르크법, 나치 과거 청산(반인륜죄, 아이히만)
	5점	6	한국사 - 조광조 도학정치와 개혁, 기묘사화 성격
		7	한국사 - 임시정부 무장투쟁(독립대전쟁) 1920년대 임시정부 군사기구, 봉오동전투
	10점	8	논술 - 글쓰기, 합리적 설명, 평가, 구조적 상상

▶ 2020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A형		
번호	영역	영역
1	역교론	2015개정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세계사, 한국사)
2	서양사	그리스, 크눛소스, 선상B문자
3	한국사	도평의사사, 6조
4	중국사	낙양, 영가의 난
5	한국사	제국신문, 신문지법, 대한매일신보
6	역교론	수업 설계시 검토 사항, 주제 선정-구체적 방법, 교과서관, 교육과정관
7	중국사	현종, 유안, 판매법, 통상법
8	서양사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아퀴나스, 톨레도(지명), 아리스토텔레스 영향
9	역교론	비판적 읽기-조공책봉관계, 일상적 감정이입, 다원적 천하관, 외왕내제
10	한국사	구삼국사, 술이부작(직서주의), 구삼국사와 삼국사기 비교
11	세계사	삼국간섭직후 종려비밀조약-동청철도, 1898 러시아 여순, 다렌 조차, 하얼빈 포츠머스강화조약
12	서양사	계몽사상가, 디드로, 백과전서, 자연권, 근대 노예제 특징

B형		
번호	영역	영역
1	한국사	원산노동자총파업, 원산노동연합회, 혁명적노동조합운동
2	한국사	대야성, 단양적성비
3	역교론	발문-조선후기 신분제 변동, 그림 자료의 특징
4	한국사	고대의 수취 제도(대인, 대가), 인두세, 호세, 고대국가-왕의 직접 지배
5	서양사	트라야누스, 콘스탄티누스, 종교(그리스도교) 정책
6	역교론	평가기준, 대비되는 자료 선정 유의 사항, 성향적 설명의 문제점
7	중국사	왕망, 신나라, 왕전제 내용
8	서양사	여성 참정권, 제2의 성, 여성운동 특징
9	중국사	심천(선전), 주해(주하이) 경제특구, 남순강화, 등소평, 시장 개방
10	한국사	발책개헌, 4사5입개헌
11	역교론	시뮬레이션 학습

▶ 2021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A형		
번호	영역	영역
1	역교론	2015개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기입형(단순 암기)
2	한국사	무령왕릉 지석, 성왕 관산성 전투
3	한국사	만국공법, 속방 규정
4	서양사	페르시아전쟁, 다리우스 1세
5	역교론	뤼젠(뤼센) 역사의식 유형(발생적), 과거의 의미, 이야기 등
6	동양사	진시황제 정책(중앙집권화), 한비자
7	한국사	조선 유향소, 사림과 훈구
8	서양사	보니파키우스 8세, 필립 4세, 콘스탄츠공의회
9	동양사	이홍장 관직, 의화단운동, 신해혁명의 무창봉기 배경(철도국유화)
10	서양사	미국 남북전쟁, 자작농지법
11	동양사	쿠빌라이(원 세조), 화폐, 시박사, 바닷길
12	역교론	수업설계에 대한 분석(수험생의 해석, 판단이 중요)
B형		
번호	영역	영역
1	한국사	상업적 농업(상품작물재배), 수레
2	동양사	9품증정제(구품증정제)
3	역교론	이야기식 수업, 총괄적 설명, 연표 유용성
4	서양사	플라시전투 결과, 7년전쟁, 프리드리히 2세
5	한국사	물산장려운동, 관세 철폐 이유 등
6	동양사	태평천국운동, 조계, 공부국 설치(어려움. 동아시아사가 작년에 이어 강조된 문항)
7	역교론	술만의 교육과정지식, 와인버그 부재증거의 고려
8	한국사	4·3제주항쟁, 1948년 이승만 반공 정책, 유신헌법(통일주체국민회의)
9	서양사	필립2세, 대헌장, 프리드리히 2세, 멜피헌장
10	한국사	요세, 최우, 혜심
11	역교론	평가의 의의, 수행평가 관련(포트폴리오 등)

▶ 2022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A형		
번호	영역	영역
1	역교론	딜타이, 추체험, 표현
2	동양사	당나라, 오경정의, 경교
3	동양사	장학성, 문사통의(사학, 사덕)
4	한국사	흑수부말갈, 신라
5	역교론	토론수업(토론 주제 선정시 유의점, 모둠 구성 방법), 질문 유형
6	동양사	명나라 수도(북경), 하도(河道)사업 해악, 도르곤, 이자성
7	서양사	인권선언 내용, 1791년 헌법 참정권, 부르쉴샤프트운동, 카를슈바드법령
8	한국사	고려 중방, 교정도감, 어사대, 중서문하성
9	한국사	일제강점기 부제(府制), 1920년대 도시, 애국반
10	역교론	서술형 장점, 서술형 결과 시사점, 객관도, 선다형 문항 제작 원리
11	서양사	리키니우스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농지법
12	동양사	장개석 안내양외, 방교돈목령, 5·4운동 배경, 12·9학생운동 배경
B형		
번호	영역	영역
1	서양사	체르노빌, (리우선언)지속 가능한 발전
2	한국사	정약용, 여유당전서
3	역교론	개념학습, 내용조직(문화권적 방법)
4	한국+서양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국의 목적, 독도 문제, 대일청구권
5	역교론	내용선정(학문적 원리 : 현재의 이해), 할람, 영역고유인지이론, 선행지식
6	동양사	후한 환제 때 환관 권력 장악 배경, 당고의 금, 직용의 변
7	동양사	송, 서하, 전연의 맹
8	서양사	아바스 왕조 지배계층 구성 변화, 성상금지령
9	역교론	인증적 사고, 행위결정분석모형, 신문제작 채점 기준
10	한국사	신문왕 개혁(국학 설치, 관료전 내용)
11	서양사	30년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조약 내용,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2023년 임용시험 기출문제 분석

A형		
번호	영역	영역
1	역교론	개념(구체적 사실과 관련한 개념, 역사학의 본질 및 방법과 관련한 개념)
2	한국사	의자왕, 진덕여왕
3	한국사	보부상(혜상공국), 황국협회
4	서양사	백년전쟁, 아라스화약, 샤를 7세 상비군제도
5	역교론	2018개정 한국사 내용 체계 특징, 내용조직(분야사), 역사관
6	동양사	과진론, 진승, 황로술, 한무제 유교적 지배 이념
7	한국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한국광복군 활동, 광복군 행동준승9개항
8	서양사	테베, 크세노폰, 과두정, 스파르타의 억압적 통치
9	한국사	삼강행실도, 고려사절요
10	동양사	시모노세키조약, 청일통상항해조약, 영국의 위해위 조치
11	서양사	루터 종교개혁, 트리엔트공의회 성직과 관련한 결정 내용, 종교재판소
12	역교론	교과역량, 채점기준 작성, 인과적 설명, 논제 작성
B형		
번호	영역	영역
1	한국사	도결, 삼정이정청
2	동양사	정성공, 천계령
3	역교론	패러다임적 사고, 이항대립, 내러티브 서술 특징
4	서양사	데인로, 위탄회의, 카페왕조의 성립, 영국과 프랑스의 왕권 비교
5	한국사	의천 신편제종교장총록(교장)의 의의, 화폐 사용 건의
6	동양사	명대 과거제도(팔고문, 회시), 이갑제(부역항책 작성 역할)
7	서양사	브레즈네프 독트린, 고르바초프의 개혁(집단농장 관련)
8	역교론	교재(사진), 교수활동(자료 관련), 논쟁 관련(쟁점, 상반된 입장 자료 제시)
9	동양사	조조 병호제, 부병제 붕괴 이유, 우문옹 괄호정책
10	한국사	과도입법의원과 미국의 설치 의도, 미소공동위원회, 남북한총선거 결정
11	서양사	현장학습 유용성, 지역사 특수성, 사전교육과 현장에서 비교, 텍스트비판



▶ 2014~2022년 기출문제 영역별 분포

문항수(점수)

	역교론	한국사	중국사	서양사	기타사	합계
2014	5(20)	8(27)	4(13)	6(16)	2(4)	25(80)
2015	3(20)	5(24)	5(16)	6(18)	1(2)	20(80)
2016	5(22)	7(24)	4(15)	4(13)	2(6)	22(80)
2017	5(24)	7(24)	4(14)	4(14)	2(4)	22(80)
2018	5(22)	7(24)	4(15)	5(17)	1(2)	22(80)
2019	5(24)	7(24)	5(16)	5(16)		22(80)
2020	6(22)	7(22)	5(18)	5(18)		23(80)
2021	6(22)	7(22)	5(18)	5(18)		23(80)
2022	6(22)	6(18)	6(20)	6(20)		23(80)
2023	6(22)	7(22)	5(18)	5(18)		23(80)

※2018년도 B형 7번(중국사, 일본사, 한국사 결합 문항-중국사로 분류)

※2019년도 A형 13번(시모노세키조약-중국사로 분류, 이집트-서양사로 분류)

※2020년도 A형 11번(중국, 러시아, 일본 관계-중국사로 분류)

※2022년도 B형 4번(한국사, 서양사 각 2점씩)

▶ 2020~2023년 1차 경쟁률

	2020		2021		2022		2023	
서울	40(3)	16.33(2.67)	26(2)	15.77(4)	20	15.77	36(3)	11.72
경기	50(4)	14.16(1.75)	56(4)	13.21(9)	57	13.21	59	10.25
경기제한	2	20	1	24	2	24	1	13
강원	12(1)	15.25(3)	20(2)	13.65(0.5)	17	13.65	19	9.84
경남	14(1)	14.5(2)	12(1)	15.33(1)	14	15.33	16(1)	13.13
경북	14(2)	15.79(1.5)	15(1)	17(3)	5	17	9(1)	16.22
광주	2(1)	22(3)	3(1)	10.3(2)	2	10.3	1	23
대구	1	31	1	38	2	38	2	23.5
대전	8(1)	14(1)	0	0	1	-	1	13
부산	15(1)	16.47(3)	12(1)	17.7(2)	15	17.7	15(1)	18.1
세종	3	13	4	14	2	14	5	9.4
울산	5	17.2	6	17.8	4	17.83	-	-
인천	7(1)	19.3(2)	11(1)	13(3)	8	13	19	8.89
인천(도서)			1	21	1	21	-	-
전남	13(1)	12.6(1)	17(1)	11.65(0)	13	11.65	9(1)	10.44
전남(도서)			0	0	-	-	-	-
전북	9(1)	17.4(4)	11(1)	14.8(4)	11	14.8	13(1)	11.5
전북벽지					-	-	-	-
제주	3(1)	9.67	5(1)	11.6(0)	3	11.6	3(1)	12
제주IB							1	3
충남	16(1)	13.8	10(1)	13.1(2)	13	13.1	19(1)	10.7
충북	8(1)	13.4(1)	18(2)	12.4(1.5)	11	12.4	15(1)	11.1
합계	222(20)		211(19)		201		243(20)	11.54

▶ 2014~2020년 모집 인원

2014년 216명  
 2015년 252명  
 2016년 225명  
 2017년 223명  
 2018년 284명  
 2019년 317명  
 2020년 222명  
 2021년 229명  
 2022년 201명  
 2023년 243(20)명

▶ 2014~2022년 1차 합격컷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79.7	63	82.67	71.67	74.34	64	59.34	69.33	75.67	
경기	84.6	61	80	71.33	70.33	63.33	57.67	66.67	76.33	
경기제한						59	54.67		74.33	
강원	77.87	61.33	75.67	71.67	63	61	55	62	73.67	
경남	78.27	58.34	80	70.34	73.33	62	57.33	64.33	71.67	
경북	78.93	58.66	78.67	71.34	70	61.67	55	65.67	69.67	
광주	74.06	65.67	80.67	67.67	71.66	62	59.67	62.33	76.33	
대구	83.6	58.33	81.66	71.67	68.67	63.67	·	·	76	
대전	69.27	63.67	81.67	70.67	73.67	63.67	57.67	·	72.67	
부산	77.27	56	79	72.34	73.33	63	57	68	71.33	
세종	80.6	55	81	71.33	68.67	66.33	58.67	67	82.33	
울산	78.87	56	78.33		69	59	54.34	68.67	76	·
인천		67.33	79.33	71	70.67	62.34	59.33	66.33	76	
전남	75.87		79.33	71.33	68.66	62.33	55.67	64	73.67	
전북	77.2	63.44	74.66	71.33	70.34	62.33	56.33	66.67	74.33	
제주	77.86		78	72	66.67	64	54.66	63.33	73.67	
충남	77.86	60.67	79.33	72.67	70	61.33	57	67	75	
충북	75.2	58.34	81.66	73	70	60.66	56.67	67	72	

### 03. 2024년 교원임용시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역교론의 변화가 다시 생기다(긴 지문, 실수업의 사례에서 전공서 내용 확인하는 문항으로).
- 폭넓으면서 세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문제는 늘 나온다.
- **사료는 언제나 중요하다. 특히, 사료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항(기입형)에 익숙해야 한다.**
- 서답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어(키워드)이다. 서술에 핵심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질문이 문항을 만든 사람은 명확하지만, 수험생에게는 불명확한 것이 있기때문에, 서술을 해야 한다.
-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수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
-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경쟁자는 자기 자신이다!!!**
- 2차(수업 실연과 면접)가 여전히 중요하다.

#### ▶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2019년도 임용시험은 2014년도 임용시험을 치른 후, 한 획을 그을 만한 시험이었다. 2015년도 임용 시험이 지금까지 가장 합격점수가 낮았는데, 그때의 난이도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료를 활용하여 기입형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은 매우 정확한 인지기역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채점의 결과는 2015년도 임용시험이 서울 63점, 경기 61점이었고, 2019년이 서울 64.34, 경기 63.33으로 오히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답형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의 난이도 상승은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가면서 어렵지만, 2019년도의 시험은 체감상 엄청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점수는 일정정도 올라가서 2015년도와 거의 비슷한 점수를 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도 임용시험은 어떠하였는가? 가장 어려운 느낌이었고, 결과는 지금까지의 합격컷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시험이었다. 그 이유는 길어진 지문, 낯선 주제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시험이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실제로 합격컷이 가장 낮다. 그런데 매년 있는 현상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문제는 쉬워보이고, 자신의 실수들만 눈에 보이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분명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 최고 어려운 문제였었고, 결과는 합격컷이 가장 낮았다. 2015년과 2019년의 컷과 유사한 것 같지만, 그보다 5점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2021년도 임용시험은 어떠하였는지 보자.

역교론은 2020년도 임용시험과 유사하거나 약간 쉬운 결로 보인다. 2015개정 동아시아사 단순 기입형은 오답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외의 것에서는 최상으로 어려운 것은 없다고 보며, 어려움을 삼등분할 때 상(上)의 난이도가 좀 있다. 술만의 교육과정지식이나 와인버그에 관한 문제는 쉬운 문항이라 볼 수 있다.

한국사는 모르는 주제는 없었지만, 물산장려운동에서 사료 기입형(보호, 면직물)과 자치론자의 조선 의회가 제법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승만의 반공정책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직후 약 2개월 사이의 정책을 쓰게 한 것도 제법 난이도가 높다. 무령왕릉 지식도 정답률이 높을 정도의 쉬운 문항은 아니다. 그렇다고 매우 어려운 문항으로 보기도 어렵다. 조선후기 상업적 농업은 알지만 어떤 용어를 써야 할지 애매해서 틀린 경우가 많은 문항이다.

동양사에서는 말이 많았던 것이 이흥장의 관직 문제와 조계 문제였다.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한 문제였다. 그래서, 또 새로운 책을 봐야 한다는 말들이 있지만, 동아시아사와 그 교과서의 중요성이 강조된 문항이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사는 중국사와 일본, 그리고 중심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항이 꼭 출제된다고 보면 되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이 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박사 문항은 최근에 출제되었지만 재출제된 문항이다. 공부를 최근의 기출이더라도 꼼꼼하게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한 문항이다.

서양사는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의 문항은 없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면, 아는 문항이라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게 문항을 배치하였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점수가 제법 차이나게 하였다.

이러한 2021년 교원임용시험은 결과적으로 2020년 교원임용시험보다 합격 컷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기준으로 볼 때 10점 정도 상승하였다.

2022년도 임용시험도 2021년에 비해 조금 쉬워져서 결국, 5점 정도는 상승하였다. 전공이 쉬워진 점, 교육학이 어렵다고 느낀 점, 그리고 선발 인원이 줄어든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3점에서 5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도 임용시험은 분명 작년 2022년도 임용시험보다는 어렵다. 그래서 5점 정도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주제들을 비교해보자. 먼저, 역교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3년 교원임용시험의 역사교육론 시험 분류이다.

A형	1	개념(구체적 사실과 관련한 개념, 역사학의 본질 및 방법과 관련한 개념)
	5	2018개정 한국사 내용체계 특징(중학교와 비교), 내용조직(분야사), 역사관
	12	교과역량, 채점기준(체크리스트 작성), 인과적 설명, 논제 작성
B형	3	패러다임적 사고, 이항대립, 내러티브 서술 특징
	8	교재(사진), 교수활동(자료 관련), 논쟁 관련(쟁점, 상반된 입장 자료 제시)
	11	현장학습 유용성, 지역사 특수성, 사전교육과 현장에서 비교, 텍스트비판

문항의 주제만 놓고 본다면 어려운 것이 없어보이지만, A형 1번에서 개념 부분은 정답률이 상당히 낮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A형 12번에서 '인과적 설명'에서는 '서술'을 해야 하는데, '인과적 설명'이라는 용어만 쓴 경우가 있어 감점이 예상되기도 한다.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보고,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B형 3번의 내러티브는 함께 수업한 수험생들은 쉽게 접근했지만,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다른 수험생보다 2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래는 2022년 교원임용시험의 역사교육론 시험 분류이다.

A형	1	딜타이, 추체험, 표현
	5	토론수업(토론 논제 선정시 유의점, 모둠 구성 방법), 질문 유형
	10	서술형 장점, 서술형 결과 시사점, 객관도, 선다형 문항 제작 원리
B형	3	개념학습, 내용조직(문화권적 방법)
	5	내용선정(학문적 원리 : 현재의 이해), 할람, 영역고유인지이론, 선행지식
	11	인증적 사고, 행위결정분석모형, 신문제작 채점 기준

아래는 2021년 교원임용시험의 역사교육론 시험 분류이다.

A형	1	2015개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기입형(단순 암기)
	5	뤼젠(뤼젠) 역사의식 유형(발생적), 과거의 의미 등
	12	수업설계에 대한 분석(수험생의 해석, 판단이 중요)
B형	3	이야기식 수업, 총괄적 설명, 연표 유용성
	7	술만의 교육과정지식, 와인버그 부재증거의 고려
	11	평가의 의의, 수행평가 관련(포트폴리오 등)

아래는 2020년 교원임용시험의 역사교육론 시험 분류이다.

A형	1	2015개정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세계사, 한국사)
	6	수업 설계시 검토 사항, 주제 선정-구체적 방법, 교과서관, 교육과정관
	9	비판적 읽기-조공책봉관계, 일상적 감정이입, 다원적 천하관, 외왕내제
B형	3	발문-조선후기 신분제 변동, 그림 자료의 특징
	6	평가기준, 대비되는 자료 선정 유의 사항, 성향적 설명의 문제점
	11	시뮬레이션 학습

역교론은 2020년도 임용시험 문항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암기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분석, 해석, 종합하는 형태로 주어진 것이 또한 난이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들은 학교 일선에 이루어진 수업이거나, 수업의 여러 모형을 연구한 논문이나 자료에서 빌려온 수업 형태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답이 보이지는 않고, 한 두 번은 생각해야 하는 문항이었다. 결국, 역교론의 문항은 시간, 집중력, 정확한 해석과 분석 등과의 싸움이였다. 그런데, 2022년도 임용시험은 다시 전공서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서 쓰는 시험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2023년도 임용시험에서는 다시 2021년도 임용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다. 확실한 기입형과 약간의 추론을 해야 하는 문항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역교론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시험 유형과 상관없이 역교론의 전공서는 반드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의 이론』,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은 필독서이다. 더불어, ‘2021년도 임용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포트폴리오’와 올해 출제된 ‘텍스트 비판’을 생각해보면 『역사교육의 이해』도 보기를 권한다. 『역사교육의 이해』는 여러 책을 요약하는 형태 혹은 처음 시작할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보는 게 좋으며, 여타의 책에도 없는 내용이 있다. 올해 문항과 관련해서 내리티브는 문항은 소위 갈색책 즉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부분이나 『역사교육 첫걸음』이라는 책에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갈색책 외에 『역사교육 첫걸음』을 필독서로 보기는 어렵다. 필독서가 충분히 되었다면, 주제별로 볼 만하다. 논쟁과 관련해서는 『시민교육을 위한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천』에서 출제되었다고 보는데, 이 역시 이 책을 필독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에서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긴 지문을 짧은 시간 내에 집중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은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교과서의 탐구문제나 탐구활동 등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역교론의 기본적인 지식은 당연히 전공서를 통해서, 그리고 전공서에 기반해서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기반 위에 실제 수업에 이러한 지식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연습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 기반의 교과서의 탐구활동이나 문제를 봐둘 필요가 분명히 있다.

셋째, 최근 3개년 동안의 기출에 대한 주제를 분석하고 기억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9년~2021년 임용시험에서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입형으로 물은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2022년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올해 2023년 임용시험에서는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부분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조직 비교를 출제하였다. 암기라기 보다는 문항 자료를 보면 거의 추론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개정교육과정에서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억이 있는 것이 확실히 좋다고 생각한다.

역사교육론에 이어 한국사와 세계사를 살펴보자. 먼저 2023년 교원임용시험의 한국사이다.

A형	2	의자왕, 진덕여왕
	3	보부상(혜상공국), 황국협회
	7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한국광복군 활동, 광복군 행동준승9개항
	9	삼강행실도, 고려사절요
B형	1	도결, 삼정이정청
	5	의천 신편제종교장총록(교장)의 의의, 화폐 사용 건의
	10	과도입법의원과 미국의 설치 의도, 미소공동위원회, 남북한총선거 결정

역시 주제만 놓고 보면 어렵다고 느낄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진덕여왕을 선덕여왕으로 쓴 경우가 보이고, 황국협회도 오답이 조금 있으며, 행동준승9개항 문항은 정답자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긴 한자로 주어진 삼강행실도와 고려사절요도 오답이 보이며, 도결은 총액제로 쓴 경우가 더러 있다.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은 간단하게 출제된 것인데, 수험생의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낀 것으로 보이며, 과도입법의원도 제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함께 한 수험생은 이 부분에서 다른 수험생보다 좀 더 정답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점수가 2~3점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래는 2022년 교원임용시험의 한국사이다.

A형	4	흑수부말갈, 신라
	8	고려 중방, 교정도감, 어사대, 중서문하성
	9	일제강점기 부제(府制), 1920년대 도시, 애국반
B형	2	정약용, 여유당전서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미국의 목적, 독도 문제, 대일청구권
	10	신문왕 개혁(국학 설치, 관료전 내용)

아래는 2021년 교원임용시험의 한국사이다.

A형	2	무령왕릉 지석, 관산성 전투
	3	만국공법, 속방 규정
	7	조선 유향소, 사림과 훈구
B형	1	상업적 농업(상품작물재배), 수레
	5	물산장려운동, 참정론자(조선의회)
	8	4·3제주항쟁, 이승만 반공 정책, 유신헌법(통일주체국민회의)
	10	요세, 최우, 혜심

아래는 2020년 교원임용시험의 한국사이다.

A형	3	도평의사사, 6조
	5	제국신문, 신문지법, 대한매일신보
	10	구삼국사, 술이부작(직서주의), 구삼국사와 삼국사기 비교
B형	1	원산노동자총파업, 원산노동연합회, 혁명적노동조합운동
	2	대야성, 단양적성비
	4	고대의 수취 제도(대인, 대가), 고대국가-왕의 직접 지배
	10	발체개헌, 4사5입개헌

전반적으로 공부할 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들이다. 2022년 시험에서는 ‘독도’ 문제를 잘 결합시켰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단순히 물은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관련하여 물었는데 좋은 문항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부제(府制)’가 결과적으로 ‘부협의회’ 관련으로서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더불어 ‘부제’와 결합하여 ‘1920년대 도시’ 문제도 어려운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임용시험 문항인 ‘조선의회’와 느낌이 유사한 문항이다. 이 두 문항은 ‘교과서’를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전기 부분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2023년도 임용시험에서는 조선전기 문항으로 삼강행실도와 고려사절요가 출제되었다. 한국사는 늘 시대별로 하나의 주제씩은 출제된다고 예상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제 2023년 교원임용시험 동양사(중국사)이다.

A형	6	과진론, 진승, 황로술, 한무제 유교적 지배 이념
	10	시모노세키조약, 청일통상항해조약, 영국의 위해위 조차
B형	2	정성공, 천계령
	6	명대 과거제도(팔고문, 회시), 이갑제(부역항책 작성 역할)
	9	조조 병호제, 부병제 붕괴 이유, 우문유 괄호정책

역시 다시 보면 어려운 주제는 없다. 다만, A형 6번에서 과진론이 의외로 많이 틀린 것으로 보이며, 한무제의 유교적 지배 이념 문제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할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A형 10번의 ‘청일통상항해조약’은 그 조약 내에서 시모노세키조약과 최혜국대우를 물어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다. B형 2번 정성공과 천계령은 한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답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우문유의 괄호정책은 함께 한 수험생에게는 매우 쉬운 문항이었으나, 그 외는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중국사는 특별히 과하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아래는 2022년 교원임용시험 동양사이다.

A형	2	당나라, 오경정의, 경교
	3	장학성, 문사통의(사학, 사덕)
	6	명나라 수도(북경), 하도(河道)사업 해악, 도르곤, 이자성
	12	장개석 안내양외, 방교돈목령, 5·4운동 배경, 12·9학생운동 배경
B형	6	후한 환제 때 환관 권력 장악 배경, 당고의 금, 직용의 변
	7	송, 서하, 전연의 망



아래는 2021년 교원임용시험 동양사이다.

A형	6	진시황제 중앙집권화, 한비자(법가사상)
	9	이홍장 관직, 의화단운동, 신해혁명의 무창봉기 배경(철도국유화)
	11	쿠빌라이(원 세조), 화폐, 시박사, 바닷길
B형	2	9품중정제(구품중정제)
	6	태평천국운동, 조계, 공부국 설치

아래는 2020년 교원임용시험 동양사이다.

A형	4	낙양, 영가의 난
	7	현종, 유안, 관매법, 통상법
B형	7	왕망, 신나라, 왕전제 내용
	9	등소평의 남순강화, 심천(선전), 주해(주하이) 경제특구, 시장 개방

2022년 임용시험에서는 ‘방교돈목령’은 정답률이 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되는 문항이고, 장학생의 문사통의는 쉬운 주제였지만, ‘사덕(四德)’을 쓴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교돈목령’은 『강좌중국사』에서만 볼 수 있고, ‘사덕’도 『중국사학사』에서 볼 수 있으니, 어려운 문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18년도의 송나라 역사서인 ‘통지’의 문항과 유사한 느낌이다. 이외에는 거의 어려운 문제로 보기 어렵다.

2021년 교원임용시험의 중국사는 이홍장의 관직을 묻는 문항이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낀 문항이었고, 근대기의 상해 ‘조계’가 중국사에서는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아틀라스 중국사』에 있는 내용이다. 교과서의 중요성을 다시 실감하는 문항이다.

2020년 교원임용시험의 중국사에서는 당의 소금전매제 문제가 오답이 조금 있고, 현대사에서 등소평의 남순강화와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경제특구와 사료의 기입형 문제로 출제되어 오답이 제법 있는 편이었다.

이제 2023년 교원임용시험 서양사 문항이다.

A형	4	백년전쟁, 아라스화약, 샤를 7세 상비군제도
	8	테베, 크세노폰, 과두정, 스파르타의 통치
	11	루터 종교개혁, 트리엔트공의회 성직과 관련한 결정 내용, 종교재판소
B형	4	데인로, 위탄회의, 카페왕조의 성립, 영국과 프랑스의 왕권 비교
	7	브레즈네프 독트린, 고르바초프의 개혁(집단농장 관련)

A형 4번에서 아라스화약의 오답이 조금 있는 듯하고, A형 11번에서 트리엔트공의회의 결정 내용은 일반적으로 쉽게 느껴지지만, ‘성직’과 관련하여 제한을 하면서 의외로 오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임용시험 A형 6번 ‘진시황의 정책’과 유사한 느낌이다. 당시에 진시황의 정책을 모를리 없지만 자료를 통해서 물었던 것으로 도량형 통일, 화폐 통일, 문자 통일 정도만 가능했는데, 진시황의 통일 정책을 아무 것이나 서술해서 오답이 된 경우가 있다. 올해 트리엔트 공의회 문항도 성직과 관련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서술한 경우 오답이 있다고 보인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B형 7번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중에서 ‘집단농장’과 관



련한 것에 대해서는 정답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다. 서양사개론에서 '집단농장 폐지'가 답이 된다, 아니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난 답이 된다고 본다. '집단농장 폐지'는 '사회주의 제도하의 집단농장이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양사개론의 문장을 잘못된 서술로 보는 경우는 '집단농장'을 단순히 '집단농장'으로 보기 때문이고, 나의 경우는 '사회주의 제도하의 집단농장'으로 보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생긴다. 이 외 서양사에서 어려운 문항은 없다.

아래는 2022년 교원임용시험의 서양사 문항이다.

A형	7	인권선언 내용(자유, 소유권), 1791년 헌법 참정권 부르센샤프트운동, 카를슈바드법령
	11	리키니우스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농지법
B형	1	체르노빌, (리우선언)지속 가능한 발전
	8	아바스 왕조 지배계층 구성 변화, 성장금지령
	11	30년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조약 내용,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다음은 2021년 서양사 문항이다.

A형	4	페르시아전쟁, 다리우스 1세
	8	보니파키우스 8세, 필립 4세, 콘스탄츠공의회
	10	미국 남북전쟁, 자작농지법
B형	4	플라시전투, 7년전쟁, 프리드리히 2세
	9	필립2세, 대헌장, 프리드리히 2세, 멜피헌장

아래는 2020년 서양사 문항이다.

A형	2	그리스, 크넷소스, 선상B문자
	8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아퀴나스, 톨레도(지명), 아리스토텔레스 영향
	12	계몽사상가, 디드로, 백과전서, 자연권, 근대 노예제 특징
B형	5	트라야누스, 콘스탄티누스, 종교(그리스도교) 정책
	8	여성 참정권, 제2의 성, 여성운동 특징

2022년 임용시험의 서양사는 자유, 민주, 저항과 관련한 주제가 출제되는 느낌이다. 체르노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보면 허(虛)를 찌르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답률이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반영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교과서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주제이다. 나머지 주제는 충분히 나올만한 주제에 그렇게 어렵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

2021년 임용시험의 서양사에서는 서양사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프리드리히 2세가 둘 다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와 작년의 서양사는 대체로 평이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임용시험에서 서양사는 사료의 기입형 문제로 나오면서 계몽사상의 자연권과 근대 노예제 특징 문제가 시험 당일 혼란을 주었다. 서양사 중에서 가장 오답이 높은 것은 서프러제트(여성참정

권) 문제이다. 충분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문항 역시, 중학교 역사 교과서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중시되고 있는 주제였으며, 내용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이상 4개년 동안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문제를 놓고 보면, 반복되는 말이지만 충분히 쉽고 중요한 주제에서 출제되었지만, 어렵게 출제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어렵다는 부분이 교과서와 밀접한 부분이거나 자료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정도라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 방법을 보면 다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기본서라고 불리는 전공서(한국사통론, 신뿌샘, 동양사개론과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양사개론 등에 충실하면서 교과서를 철저히 보아야 한다. 교과서는 2014년 서답형으로 바뀌고 난 이후 한 번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다. 향후 서답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교과서를 보아야 할까요?’라는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보아야 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볼 수 있는 만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서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보충서로서 한국사는 『다시찾는 우리역사』, 『한국사 길잡이』 등이 필요하며, 최근에 수험생들은 푸른역사에서 출판한 ‘시대사 총서 10권’을 봐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까지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수험생이 가져야 할 부담이라기 보다, 강사가 기본서를 통해 전달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뿌샘』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 많지만, 사료를 제외하고 나면 양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2020년의 ‘원산노동연합회’, 2021년의 ‘상업적 농업’ 문제, 2022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문항은 『뿌샘』의 위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역시 뿌샘도 강사가 핵심을 어떻게 요약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동시에, 교과서도 절대 소홀할 수 없다. 하지만, 동양사나 서양사는 철저히 『동양사개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양사개론』을 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이 많은 책을 어떻게 다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본다면 언젠가는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천천히 보면 다 볼 수 있다는 말은 수험생에게 답이 되지 못한다.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강사가 얼마나 압축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문제와 얼마나 ‘반복하느냐’이다. 즉, 기본서와 교과서의 내용을 1년 동안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강사의 몫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강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속성은 강사의 커리큘럼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그래서 이 기본 전공서를 1월에 먼저 하는 것이 나은 맞다고 본다. 이후 기본 전공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삼아, 강사가 발행한 수험서에서 요약식으로 재확인하고 반복하며, 그리고 구조화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저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구조화하고, 그리고 다른 전공서 내용과 교과서의 내용을 첨가하고, 이를 통해 지식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한다.

#### 04. '전공역사 김종권' 1년 커리큘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가? 위 역사교육론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기출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1년 커리큘럼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2월의 목표는 지식의 확대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이해와 확실성’을 갖추는 과정으로서 전공서 강독이다.** 교원임용시험의 전공역사의 기본은 ‘전공서’여야 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답안을 서술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은 시험 점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서 합격으로부터 멀어진다. 중고등학생은 교과서가 기본이고, 그 다음 참고서를 통해서 요약하고 구조화하며 문제를 풀어나간다. 우리도 동일한 순서를 밟아나가야 한다. 기본서는 무조건 전공서여야 한다. 이 전공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이후 공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는 1월부터 ‘전공서 강독’을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두었다.

지금의 시험 제도와 형식을 생각해보자. 개조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는 없다. 긴 사료를 주거나, 문장을 주거나, 혹은 내용이 아주 많은 1문항을 준다. 그런데 90분 동안에 핵심을 파악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답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엉뚱한 답안을 서술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문항을 역사가 아니라 국어의 ‘문해력’이라고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설사 ‘문해력’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고, 처음부터 긴 문장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이 병행되는 지식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오로지 전공서를 먼저 보는 것이다.

마음만 앞서거나 조급해서 ‘요약식’ 혹은 ‘개조식’만 보게 될 경우, 결국 답안에서 요구하는 서술을 잘하지 못하고 짧은 글만 쓰거나 단어만 쓰는 올바른지 못한 답안 서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긴 글을 잘 읽지 못하여 긴 문장에서 ‘핵심’을 찾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최근의 상담 사례를 보면, 전공서를 안 보고 시험을 본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방대한 전공 내용을 정리하기란 쉽지 않고, 또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전공 내용의 가장 기본은 소위 ‘전공서’여야 한다. 그래서 이 전공서를 기반으로 내용을 압축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월에 전공서 학습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순서에 있어서 맞으며, 이를 커리큘럼에 반영하였다.

실제로 함께 했던 수험생들의 수강평 중에 전공서 강독을 많이 추천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책을 보고 읽는 것이 남들과 다르며 좋다’는 것이다. 지식뿐만 아니라, 긴 문장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홀히 보았었던 내용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책 내용의 구조화를 잘 하기때문에 방대한 전공서를 쉽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함께 보았던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도 많이 해준다. 결국 1월 시작에 본 전공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기본 지식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초수'에겐 필수이다. 대학 교육과정에서 역사를 '통사' 형식으로 제대로 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뿐 아니라, 역사 시험은 통사 형식으로 전체를 보며,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주요 사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역사교육론도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전반적으로 접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의시간은 수·목·금 3일간 진행을 한다. 수요일에 역사교육론, 한국사를 진행하며, 목요일에 한국사와 중국사, 금요일에 중국사와 서양사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인데, 이러한 **교재 내용을 '그린노트'라는 이름으로 2주차부터 그 전주에 수업한 내용을 '기입형'으로 변환시켜 매주 프린트로 제공이 된다.** 이 '그린노트'가 수험생분들에 의하면 암기에 상당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그린노트를 미리 전부 다 주면 안 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매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주시면 한다.

또한 **'김종권의 체크카드'를 제공한다.** 수업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적당한 크기의 사진으로 만들어 매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동중에 간단히 복습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기에도 꽤 도움을 준다. 이 '김종권의 체크카드'는 11월까지 계속 제공될 것이고, 이 '체크카드'의 효과도 2023년 임용시험에서 꽤 효과가 있었다.

**둘째, 3~4월은 '확실한 지식을 기반으로 지식의 확대와 구조화'로 나가는 과정이다.** 교재 『살아있는 역사교육론』과 『세상의 모든 역사』 시리즈를 통해, 1~2월에 진행한 내용지식을 재정리 즉 반복하고 더불어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재구조화에는 당연히 **교과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지식을 흡수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기본 지식을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나 구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의 양을 늘려나갈 경우, 지식이 산만해져서 '많은 사실들이 머리 속에 붕붕 떠다니는 현상'을 겪게 되어 학습이 힘들어질 수 있다. 기본 지식이 충실히 되어 있어야 새로운 혹은 더 깊은 내용의 흡수가 잘 되며, 이 또한 구조화되고 도식화된다.

1월~2월처럼 수·목·금 3일간 역교론 → 한국사 → 동양사 → 서양사 순으로 진행된다. 교재의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해 예를 들면, 한국사에서는 1월~2월에 『한국사통론』과 『뿌샘』을 기본서로 보았다면, 『세상의 모든 역사1, 한국사』에서는 『한통』, 『뿌샘』의 내용뿐 아니라, 『다시찾는 우리역사』, 『한국사 길잡이』, 『푸른역사 시대사총서』 등의 전공서와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2015개정版的 『교과서』 내용이 녹아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교과서를 이미 접하는 게 되며, 교과서 중 1종을 별도로 보기도 한다. 중국사와 서양사도 마찬가지이다. 『강좌중국사』, 『중국의 역사 시리즈』, 『중국근현대사(삼천리)』, 『자료로 보는 아시아사』 등과 『서양사강좌』, 『서양사강의』, 『서양사총론』, 『서양고대사강의』, 『서양중세사』 등의 여러 책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3~4월의 강의에서는 훨씬 깊은 내용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구조화도 다시 한 번 더 진행하게 되어, 여러 내용지식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공서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뿐 아니라, 이 교재에 단권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1~2월에 진행한 전공서의 내용을 교재와 비교하고 확인하면서, 앞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나의 교재에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3~4월에는 나의 교재 속에 있는 사료를 확인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있다. 사료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특히 사료 자체의 내용을 묻는 문항들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사료학습은 필수이다. 그러나 혼자서 수많은 사료를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학습 자체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다. 이 사료들을 별도의 책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항상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수 있지만, 교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3~4월 강의에도 ‘김종권의 체크카드’를 제공할** 것이다. 교재의 내용을 더욱 단순화하고, 핵심적인 사료를 보며, 사료를 기입형으로 만들어 ‘김종권의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역시 2주차부터 제공된다고 보면 된다.

수험생들이 직접 소위 ‘서브화’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시간과 노력을 3~4월 강의에서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3~4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상의 모든 역사』 교재에 단권화를 하면 훨씬 수월할 수가 있다.

그리고 1월~2월, 3월~4월의 과정에서는 매주 ‘형성평가’가 제공될 것이다. 형성평가 문항은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주제로서 만들어서 제공된다.

여기까지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기출분석’으로 넘어가게 된다.

**셋째, 지식의 확실화와 확대를 거쳤다면 그 지식을 기출을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기출을 토대로 변형하는, ‘기변하라’의 과정이다.** 꽤나 많은 수험생이 5월부터 진행하는 ‘기변하라’ 강의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변하라’는 ‘기출을 변형하라’는 의미로서 기출을 분석할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유형의 강의이다. 그래서 기출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즉, 기출에 나온 주제들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강의이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우리 시험도 ‘기출’은 하나의 표준,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출을 안 보고 시험보러 간다는 것은, 핵심을 안 보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전공서에 대한 이해와 기억없이 기출만 보거나, 기출을 분석하는 것이 ‘기출의 답’만을 본다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공부 방법이며 무의미하다. 기출의 주제와 ‘객관식’ 문항에서 여러 보기들을 파악하며, 기출의 흐름을 읽고 예측하는 것까지 해야 올바른 기출 분석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기출 자체를 볼 뿐만 아니라, 기출을 변형한 문제를 통해서 함께 예측도 하고 문제도 풀기 때문이다. 1월~4월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출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우리의 사고를 문제에 적응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제를 풀어보는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단순한 암기가 아닌 적용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지식을 명확하게 알게 해준다. 이로써 수험생이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주게 된다.

그리고 교과서의 본 내용만이 아니라 자료와 사료 중심으로 교과서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3월~4월에는 ‘교과서의 본문’ 중심이라면, 5월~6월은 사료와 탐구문제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출의 분량은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주지만, 어쩌면 지식의 축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교과서 강독이다.

교과서 내용을 기출과 연계하여 핵심개념과 지식을 보며, 또한 향후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핵심내용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시험과 관련한 내용지식을 더욱 탄탄하게 해주는 과정이다. 역시 이전 과정처럼 수·목·금 3일간 역교론 → 한국사 → 동양사 → 서양사 순으로 진행된다.

**넷째, 기출에서 다시 나올 만한 중요한 주제나, 최근의 기출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영역별·진도별 모의고사를 시행한다.** 흔히 말하는 진도별·영역별 모의고사를 7~8월에 한다. 그리고 9월부터 실전모의고사를 시행한다.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게 되는 때이다. 여기에서도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의 말을 빌린다면, 설사 초수라서 6월까지 내용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7월부터 지식의 암기와 더불어 이해가 된다고 한다.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6월까지 3회독이 진행된 상태이다. 잘못된 커리큘럼이나 공부 방법에 의하면 여전히 전공서의 1/2 지점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근현대 부분은 보지도 못한 상태로 시험을 목전에 두고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되어 사실상 학습이 잘 되질 못한다. 하지만, 함께 해왔다면, 전체 내용을 3회독을 해온 상태이다.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때가 7월부터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수험생다운 마인드도 많이 생긴다. 그동안 공부한 것에서 무엇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무엇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진행한 공부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문제(5월~6월의 기변문제 뿐 아니라 7월~8월의 영역별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문제에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단순히 내가 만든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분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출제자도 나의 문제가 좋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 그래서 5월부터 진행되는 ‘기출변형’ 문제부터는 꽤나 신경써서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7월부터 진행되는 ‘영역별 진도별 모의고사’는 더욱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의 출제되었던 문항들을 보면 이 ‘7~8월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꽤나 출제되고 있다.

진행은 수·목 이틀간 진행된다. 이 점이 6월까지의 진행과는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내용에 대해 축적이 되었다는 것과 자기 학습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모든 공부 과정을 총화하는 ‘실전모의고사’ 7주와 ‘마무리모의고사’ 3주를 9월부터 진행한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신으로 전환된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올해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에 찬 공부를 하게 된다. 많은 분들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니 나의 주관적인 판단은 아니다.

‘진도별·영역별 모의고사’와 ‘실전모의고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전공서를 진도별로 그리고 역교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다면 ‘진도별·영역별 모의고사’이고, 실제와 같은 형식으로 A형과 B형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실전모의고사’이다. 역시, 함께 한 분들이 늘 이야기한다. 적중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전모의고사는 수·목요일 이틀간 진행하며, 마무리모의고사는 토요일 하루 진행한다.** 모두 매주 1회의 모의고사만 진행을 한다. 이때부터는 수험생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 기존에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분량’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작년 모의고사 문제를 보아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매년 그 해에 진행되는 모의고사 문제를 소화하기에도 벅차고, 따라서 작년 문제까지 복습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 해에 진행한 모의고사를 나누어 주는 것과 2회씩 진행하는 것을 1회로 줄이기로 과감하게 결정하였다.

그리고 2021년 진행한 ‘실전모의고사’의 결과, 저 스스로도 ‘적중’에 대한 파악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으며, 2022년 진행한 ‘실전모의고사’ 또한 적중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문제를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적중을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에 대한 해설 시간을 늘림으로써 수험생들이 모의고사에서 풀어본 주제를 더 깊이, 그리고 더 확실하게 기억하게 하자는 의도를



강화하였다.

그래서 첫 주에 수요일 '실전모의고사 1회', 목요일 '실전모의고사 2회'를 했다면, 2022년 강의부터 첫 주 수요일 '실전모의고사 1회'만 진행하고, 목요일까지 깊이있는 해설을 한다는 점이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고, 또한 문제로 풀어본 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암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저와 함께 1년을 공부한다면, 장담하는데 합격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훨씬 컴팩트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인 부담도 줄었고, 따라서 수험생의 복습이나 공부량에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확실히 공부에 효율성이 더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보면 간혹 자신의 머리속에서 착오가 생긴다.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안다고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오이다. 이 착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빠르면 5월, 늦으면 9월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간혹 수험생의 입장에서 불안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자신이 안다고 생각한 것과 그럼에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알고 보완한다면 아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시험에서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멘탈이 무너질 일이 아니라 멘탈이 더욱 강해지고 자신감이 상승하게 되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23년 커리큘럼

시기	정규과정	교재
1-2월	전공서 발췌 강독 수업 수목금 10:00~18:00	<p>역교론 :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의 이론, (역사교육의 이해, 역사교육과 역사인식)</p> <p>한국사 : 한국사통론, (신부샘 전7권 프린트)</p> <p>중국사 : 신동양사개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p> <p>서양사 : 서양사개론, (서총, 서강좌 등)</p> <p>(위 자료는 수업후 모두 기입형, 완성형으로 변형하여 2주차부터 프린트 제공하며, 기타 전공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발췌하여 프린트로 드림)</p>
	<p>수요일 오전 : 역교</p> <p>수요일 오후 : 한국사</p> <p>목요일 오전 : 한국사</p> <p>목요일 오후 : 중국사</p> <p>금요일 오전 : 일본사</p> <p>금요일 오후 : 서양사</p>	
3-4월	개념 구조화 수업 수목금 10:00~18:00	<p>기본서 교재(별도 구매, 2022년 개정판, 기본서에 사료 포함)</p> <p>전공서 내용 구조화</p> <p>※서브그린노트 제공</p>
	<p>수요일 오전 : 역교</p> <p>수요일 오후 : 한국사</p> <p>목요일 오전 : 한국사</p> <p>목요일 오후 : 중국사</p> <p>금요일 오전 : 일본사</p> <p>금요일 오후 : 서양사</p>	
5-6월	기변하락 수목금 10:00~18:00	<p>기출문제집, 기출해설집 (프린트, 2000년 이후 주관식 문항 전체 및 주요 객관식 문항)</p> <p>기출변형 2주차부터 매주 진행</p> <p>한국사 교과서 수업 진행</p> <p>※기출변형과 교과서 내용은 프린트 제공</p>
	<p>기출 분석과 기출 변형</p> <p>기출과 교과서의 결합</p> <p>지식의 기출 문항 적용 (금요일은 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음)</p>	
7-8월	영역별 진도별 모의고사 수목 10:00~18:00	<p>상기 전공서의 내용 및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문항과 유사한 형식의 문항 (단, 영역별, 진도별로 진행)</p> <p>※해설지 없음</p>
	교과서·전공서적 완성형 및 영역별 모의고사	
9-10월	실전모의고사 수목 10:00~18:00	<p>모의고사 자료 제공</p> <p>※해설지 없음</p>
	실제와 동일한 모의고사	
11월	마무리 모의고사 수목 10:00~18:00	<p>모의고사 자료 제공</p> <p>※해설지 없음</p>
	엄선 주제 모의고사	



## 커리큘럼과 자신감으로 적중의 신화는 이어진다!

### ▶ 지식으로서의 역사교육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교육론”

역사교육론은 이론이지만 ‘실천’적 학문이다. 이론으로서만 접근하면 단지 외워야 할 수많은 지식일 뿐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된다. 그렇게 바라볼 때 역사교육론은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역사교육론은 얼마나 공부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얼마나 가르쳐 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으면 역사교육론에 대한 이해는 이론으로 다가갈 뿐이며, 수험생들에 대한 강의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어렵게 느껴지게 만든다. 대부분의 역사교육론을 쓰신 저자분들은 적어도 몇 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분들이 많다. 그만큼 이 학문은 ‘실천’과 밀접하다.

“경력교사와 신임교사의 차이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교수내용지식)’으로 발전시키는 관점의 소유 여부와, 가르치기 위해 내용지식을 재구성하는 경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력교사와 신임교사의 차이는 단지 시간적, 물리적 차이가 아니라 ‘교수내용지식’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와 이에 대한 경험의 차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이를 위해 풍부한 학교 경험과 실천적으로 노력해왔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책 속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풍부한 학교 현장 경험이 결합될 때 ‘역사교육론’은 살아있게 된다.

고등학교 11년, 사교육 10년, 그리고 대학원의 공부(한국교원대, 단국대 역사교육, 논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료 상태) 등 현재까지 24년의 수업 경험과 공부, 이 경험은 수험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눈과 능력을 기르게 했으며, 수험생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더욱이 학생들과의 경험이 무엇보다 ‘역사교육론’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이 되었다.

저와 수업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다.

**“역사교육론이 가장 쉬웠어요.”**

역사교육론은 이론이 아니다. 저 또한 시험을 위한 것으로만 접근했을 때 막연하고 어려웠던 과목이었지만, 10여 년의 학교 생활을 통해 획득한 경험이 ‘역사교육론’을 ‘실천’과 접목시킴으로써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쉬운 과목이었나’라고 스스로 놀랄 정도이다. 저는 이러한 이해를 모든 예비교사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고, 그것이 많은 ‘역사교육론’을 가장 쉬운 과목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책 속에서 획득한 ‘역사교육론’과 실천 속에서 얻은 ‘역사교육론’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많은 예비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쉬운 과목이 될 것이다.

### ▶ 출제자의 눈으로 주제와 문항을 볼 줄 알며, 시험의 적중이 가장 높다

비싼 돈을 내고 저와 함께 하는 분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1차 시험의 합격이고, 나아가 2차까지 합격하여, 최종합격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행복한 수업을 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좋은 커리큘럼과 더불어 마지막에서 더욱 자신감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중하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늘 자신감이 있다.

그 이유는 기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출제되어 왔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1년 동안 수없이 판단한다. 그 과정이 고스란히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고 그 결과 적중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 **역사교육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를 종합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시각**

이것은 수험생의 마인드와 관련이 있기도 하다. 각각 한 과목에 대해 전문성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개별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 역교론을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양사, 서양사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사, 동양사, 세계사를 연결시키고 볼 줄 알아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한 과목씩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너는 이걸 왜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교사는 한 과목만 가르치는 때문이다. 결국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수험생들은 각각의 지식을 개별적으로 종합하며, 강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깊이있게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1명의 강사가 4개의 전공을 다 꿰뚫고 이를 가르칠 수 있을 때, **수험생의 마인드와 동일한 선상에서 내용을 생각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지식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며 가르칠 수 있다.**

▶ **‘김종권의 체크카드’에 의한 학습의 지속성, 반복, 이해를 추구**

‘김종권의 체크카드’는 매주 수업이 끝나면 핵심적인 주제와 내용을 핸드폰이나 패드 등에 넣어서 이동 중이거나 기타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 이는 학습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습 도구이다.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역시 반복과 지속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세부적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영역에 대한 안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된다면, 소위 ‘인출’이라는 것도 훨씬 정확하게 될 수 있다.

**‘김종권의 체크카드’는 이러한 암기와 이해를 일상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며, 그래서 학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 도구이다.**

▶ **멘탈의 관리. 경쟁은 자신과 하는 것이다**

**“음박지르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배운 사람은, 학생들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교사의 행위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는 행위이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하지 마라! 등등등 ...

부정적인 언행을 듣게 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멘탈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행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스스로에게도 중요하다. “나는 안돼”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자신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 행동이나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경쟁, 시험에서는 멘탈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많이 나와서 흥분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이면 다 겪는 일이다. 하지만,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누구나 멘탈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긴장은 경쟁의식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지만, 무너지는 멘탈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멘탈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나의 연구실은 두 가지로 늘 바쁘다. 하나는 1년을 위한 연구와 그리고 많은 분들과의 대화이다. 한 해의 시험 문제를 추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한편으로는 선생님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 불안정한 마음을 함께 잡아가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를 담임 선생님같다고 한다. 난 그 호칭이 마냥 행복하다.

나는 늘 모든 수험생들에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진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현실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면 멘탈은 무너지

지 않고 안정을 취한다.

이러한 안정이 시험장에까지 가서 유지될 수 있다면 분명 성공한다. 그리고 수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실패해보고 성공해보면서 시험장에서의 ‘멘탈’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성공하는 이유이다. 스스로 갈고 닦고, 부딪히고 일어서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망과 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유명한 이탁오를 생각해 보면 욕망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합격하고 싶으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불합격해봤으니 더욱 합격하려는 욕망이 강해진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 밥 먹는 것처럼,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반대급부로 나오는 살찌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 그 불안감을 없애듯이, 합격에의 욕망을 인정하고, 강한 욕망에 의해 반대급부로 생기는 불안 등의 부정적 생각 또한 없애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배고프니 밥을 먹는 것처럼.

실천의 첫 걸음은 자신감과 용기이다. ‘내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위의 방법적인 문제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 05. 모의고사 적중 사례

### 2023년 교원임용시험 전공역사 실제 문제와 모의고사 일치(적중)

2022년 교원임용시험	모의고사
A형 1번 보부상, 황국협회	[실전모의고사 6회 A 2번]
A형 4번 아라스화약, 상비군제도	[3~4월 체크카드], [진도별 모의고사 8회 6번] [실전모의고사 7회 B 10번], [파이널 특강]
A형 5번 2018개정 역사와 한국사 비교 분야사	[진도별 모의고사 1회 6번]
A형 6번 과진론, 진승·오광의 난, 황로술, 한무제의 유교적 지배체제	[실전 모의고사 2회 B 2번] [실전 모의고사 6회 A 6번]
A형 7번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광복진선) 광복군 활동 행동준승 9개항 제정 이유	[파이널 특강] [진도별 모의고사 13회 8번]
A형 9번 삼강행실도 고려사절요, 편년체	[진도별 모의고사 7회 10번] [작년 마무리특강 자료]
A형 11번 트리엔트 공의회, 종교재판소	[실전 모의고사 1회 B 11번]
A형 12번 역량 :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채점기준 제시, 인과적 설명	[진도별 모의고사 7회 5번] [최종 모의고사 3회 A 5번] [파이널 특강] [진도별 모의고사 11회 1번] [실전 모의고사 3회 B 3번] [최종 모의고사 3회 B 7번] [파이널 특강]
B형 1번 도결, 삼정이정청	[실전 모의고사 2회 B 1번]
B형 2번 정성공, 천계령	[실전 모의고사 1회 B 6번]
B형 3번 패러다임적 사고, 이항적 대립 내러티브 특징	[파이널 특강] [진도별 모의고사 15회 1번] [최종 모의고사 2회 B 9번] [진도별 모의고사 15회 2번] [파이널 특강]
B형 4번 데인로, 위탄게모트, 카페왕조 영국과 프랑스의 비교	[최종 모의고사 3회 B 5번]
B형 5번 의천, 신편제종교장총록, 화폐	[진도별 모의고사 5회 4번]
B형 6번 팔고문, 회시, 부역항책, 이갑 의무	[진도별 모의고사 12회 1번]

B형 7번 고르바초프 브레즈네프 독트린, 프라하의 봄	[실전 모의고사 5회 A 11]
B형 8번 사진, 쟁점, 상반된 자료 제시	[최종 모의고사 1회 B 7번] [실전 모의고사 3회 A 6번] [최종 모의고사 2회 A 5번]
B형 9번 병호제, 부병제 붕괴	[3월 체크카드] [실전 모의고사 6회 B 6번] [3~4월 형성평가] [기변 2회 4번] [진도별 모의고사 8회 5번]
B형 10번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미소공위	[진도별 모의고사 15회 5번] [최종 모의고사 1회 B 9번]

**2022년 교원임용시험 전공역사 실제 문제와 모의고사 일치(적중)**

2022년 교원임용시험	모의고사
A형 1번 딜타이, 추체험, 표현	[실전 모의고사 6회 A 1번]
A형 3번 장학성 문사통의	[실전 모의고사 4회 A 11번]
A형 4번 흑수부말갈, 신라	1월 강의 강조(정답자께서 알려줌) [실전 모의고사 5회 B 11번] (성덕왕, 무왕으로 출제)
A형 7번 프랑스혁명 1791년 헌법 부르센사프트운동, 카를슈바드법령	[마무리 모의고사 5회 A 4번] [실전 모의고사 7회 A 10번]
A형 8번 고려 어사대, 중서문하성, 중방, 교 정도감	[실전 모의고사 1회 A 9번]
A형 9번 일제강점기 부제, 1920년대 도시, 애국반	[마무리 모의고사 5회 A 3번] [실전 모의고사 8회 B 8번]
A형 11번 리키니우스법, 그라쿠스 개혁	[실전 모의고사 7회 A 8번] [마무리 모의고사 B 5번]
A형 12번 12·9학생운동 배경	[실전 모의고사 2회 B 10번]
B형 2번 정약용	[마무리 모의고사 6회 A 9번]
B형 3번 개념학습 내용조직(문화권적 방법)	[실전 모의고사 4회 B 11번] [마무리 모의고사 5회 B 10번]
B형 4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마무리 모의고사 1회 B 9번]
B형 5번 내용선정, 현재의 이해	[실전 모의고사 2회 A 7번] [실전 모의고사 3회 A 5번] [실전 모의고사 4회 B 11번]
B형 6번 후한 환관 권력 장악, 당고의 금	[진도별 모의고사 4회 8번]
B형 8번 성상금지령	[진도별 모의고사 6회] [실전 모의고사 13회 B 7번]
B형 9번 인증적 사고, 행위결정분석 모형	[실전 모의고사 8회 B 3번] [실전 모의고사 12회 B 7번] [실전 모의고사 10회 A 5번] [실전 모의고사 14회 B 10번]
B형 10번 신문왕(국학, 관료전)	[진도별 모의고사 3회 9번]
B형 10번 30년전쟁, 베스트팔렌조약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파이널 특강 9번] [실전 모의고사 8회 B 11번]

**2021년 교원임용시험 전공역사 실제 문제와 모의고사 일치(적중)**

2021년 교원임용시험	모의고사
A형 1번. 역사교육론. 동아시아사 기입형	[실전 모의고사 1회 A형 1번] 동아시아사 기입형
A형 3번. 한국사 만국공법, 속방 규정 문제	[실전 모의고사 12회 A형 6번]
A형 4번. 서양사 페르시아전쟁	[실전 모의고사 8회 A형 5번]
A형 5번. 역사교육론 뤼젠 역사의식	[실전 모의고사 2회 A형 1번] [마무리 모의고사 5회 B형 6번]
A형 8번. 서양사 필립4세, 보니파키우스8세, 콘스탄츠공의회	[마무리 모의고사 6회 A형 7번]
A형 9번. 동양사 신해혁명 무창봉기 배경	[실전 모의고사 1회 B형 9번]
A형 10번. 서양사 미국 남북전쟁	[마무리 모의고사 4회 A형 2번]
B형 3번. 역사교육론. 이야기식 수업, 총괄적 설명, 연표의 효과	이야기식 수업 [마무리 모의고사 5회 B형 3번] 총괄적 설명 [실전 모의고사 8회 A형 10번] 연표의 효과 [마무리 모의고사 2회 A형 6번]
B형 4번. 서양사. 플라시전투, 프리드리히 2세	플라시전투 [실전 모의고사 2회 B형 10번] [실전 모의고사 13회 B형 10번] 프리드리히 2세 [마무리 모의고사 4회 A형 12번]
B형 5번. 한국사. 물산장려운동	[마무리 모의고사 2회 B형 10번]
B형 7번. 와인버그	[마무리 모의고사 6회 B형 11번]
B형 9번 대헌장, 멜피헌장	대헌장 [실전 모의고사 2회 B형 5번] 멜피헌장 [마무리 모의고사 4회 A형 12번]